

영산강사업단, 농번기 맞아 KRC 영농도우미 행 복충전활동 시행

✎ 봉채영 기자 | ⓒ 승인 2025.05.14 19:05



지난 13일 무안군 운남면에 소재한 양파 재배 농가에서 'KRC 영농도우미 활동'을 실시. 사진=영산강사업단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형수)은 무안군 운남면 양파재배 농가에서 농번기에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형수)은 지난 13일 무안군 운남면에 소재한 양파 재배 농가에서 'KRC 영농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전했다.

KRC 영농도우미 활동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날 일손돕기에는 영산강사업단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양파 수확, 잡초 제거, 밭 주변 정리 등 영농활동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박형수 단장은 “매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인력 확보와 인건비가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따뜻한 행복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봉채영 기자 bcy2020@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